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청년농 지원 활성화 위한 협의회

윤 당진/이도현기자 | 승인 2025.03.19 15:06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지난 7일 당진지사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농지지원등 청년농업인들의 농업경영에 필요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지난 7일 당진지사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농지지원등 청년농업인들의 농업경영에 필요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중 공사에서 지원해 준 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에 대한 판로 개척, 농작물 포장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당진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800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시 초기 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주은규 지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저작권자© 전국매일신문-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진/ 이도현기자